

“거리두기 격상 고민...경각심 가져야”

집단감염·n차 전파 동시다발...전남 동부권 비상 감염원·전파경로 불투명 수도륙...역학조사 안간힘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최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올수 있다”며 “도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발표를 통해 “지난 7일부터 10일간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과 화순 등에서 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순천시에서 7일부터 총 20명이 확진됐다. 신항은 행 지점에서 시작, 은행직원과 가족, 방문객으로 전파돼 9명이 양성 판정됐으며, 아구마을 식당과 워터피아 헬스장·사우나 등에서 11명이 추가됐다.

전남도는 순천시 사우나·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영업제한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광양시의 경우 성광기업 근무 여성 확진자에 의해 동료·가족이 감염됐으며, 이어 소풍센터 종사자, 관련기업 및 컵서비스 종사자, 식당·카페·미용실 등 n차 감염이 이뤄져 총 37명이 확진됐다.

해운군에선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가 최초 확진된 후 배우자·자녀·직장동료 등 4명이 확진, 지금까지 총 281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

는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도 차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확진자 발생지역에 ‘역학조사 공동협력 T/F팀’ 운영과 함께 중앙 질병관리청 적극대응팀의 지원을 받아 감

염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순천·광양·여수시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휴관을 권고하고, 모임·행사 시 참여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권장한다”며 “50㎡이상 식당·카페에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확진사례의 공통점은 의심증상을 감기라고 생각해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추가 확산이 되

고 있다”며 “기침·발열·인후통·근육통 등 증상 시 무조건 진단검사를 즉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n차 감염 우려에 따라 도민 스스로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언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내년 1월까지 연말 송년회 등 사적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고, 기업체·사업장은 직원 중 감기증상 시 유급휴가를 실시해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현 기자



농산물 꾸러미·김장김치 나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농협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서 개최된 ‘농산물 꾸러미 및 김장김치 나눔’ 김장 담그기 시연장에서 참석자들과 김장을 담그고 있다.

이용빈, ‘고민택시’ 타고 광주 청년들 어려움 공유

취업난·생활고 등 청취...“제도적 지원 절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사서삼량’(4일은 서울에서, 3일은 광산에서) 일환으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광주청년넷)가 주관한 ‘광주청년 고민택시’(이하 고민택시)에 참여했다.



“청년정책 지원 규모와 대상범위가 한정적이라 정책사각지대가 발생해 청년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투자가 많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민택시를 타며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현실부터 기존 농업방식을 바꿔 다양한 체험을 기획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가는 ‘시골과 채소’의 청년농부, 참신한 아이디어와 도전으로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코로나 불황을 겪는 청년상인 일터를 돌아봤다”면서 “기성세대는 청년세대가 지치고 쓰러지지 않게 기밀 언덕이 되면서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며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제발굴부터 정책 제안·모니터링 등 프로세스에서의 청년 당사자 참여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구구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 기자

“독립·민주·보훈 업무분리...합당한 보훈정책 필요”

유공자 7개 단체,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 규탄 천막농성

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7개 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국방위원회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회견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가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현재 정부위에서 국방위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운영위로 넘기는데 대한 반발에서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해 보훈처가 국방위로 넘어가게 된다.

이들 7개 단체회원들은 “군함발로 짓밟힌 우리 단체가 독립·민주·보훈 업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방위로 들어간

다는 것은 우리를 또다시 짓밟겠다는 발상이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지금도 보훈업무가 호국단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처가 국방위 소관으로 넘어가면 호국단체 위상만 높아지고, 독립·민주 유공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독립·민주 유공자 7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보이지 않게 차별받고 소외 받아온 독립·민주 유공자 단체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를 계기로 호국과 민주·보훈 업무를 별도 부처로 분리해서 조국독립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공헌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정책을 펴나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기 브리핑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폐기”

강은미, 오늘 문제실태·대안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실태와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민중노총은 ▲위헌소송 ▲집행유형별 사례조사 결과 ▲대안입법 방향 모색 세미나 등 그동안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진행돼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폐기 및 대안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강 의원은이같은 성과를 종합해도 도입 10년을 경과하고 있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문제점과 폐기 필요성 및 대안입법방향에 대해발제하고토론할 방침이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산구의회, ‘갑질’ 물의 의원 제명 추진

윤리특위, 조상현 의원 제명안 만장일치 채택

광주 광산구의회가 상습적인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한다.

16일 광산구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무소속 조상현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 의원 제명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선인 조 의원은 갑질 문제로 30일 출석정지 등 세 차례 의회 차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산구의회 윤리특위는 조 의원의갑질 문제가 고질적인 만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

역분부가 최근 시행한 지방의회 관련 설문조사에서 실명으로 갑질행위를 지적받으면서 또다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공무원노조는 이권개입,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 무리한 요구 등 조 의원의 갑질행위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더불어민주당의전신인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2014년 광산구의회에 입성해 초선 때부터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초선시절 광산구 6급 이하 공무원 수백명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광산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재선 후에도 같은 논란을 반복하자 지난해 3월 민주당 광주시당은 조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영봉 기자

역량이 있는
신인작가를
발굴합니다.

신춘
문예

제2회 전남매일 신춘문예 ‘골드문학상’ 공모

공모부문 및 시상 내역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상금 15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당선작 1편, 상금 200만원)

접수마감
2020년 12월 10일(목)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

보내실곳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98 (사동)
전남매일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응모작은 신문,잡지,단행본 등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같은 작품을 다른 신춘문예 공모에 중복 응모했을 경우에는 낙선 처리됨
- 봉투 겉면에 ‘신춘문예 ○○부문 응모작’ 이라 쓰고, 작품 편수를 반드시 명기
- 원고 접수시 맨 뒷장에 성명(필명일 경우 본명 기재), 전화번호, 주소를 명기
-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팩스나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문의 062) 720-1071~2

주최 : M 전남매일 후원 : (재) 골드클래스문화재단